

광주시, 김장대전 흥행…매출 20.8억 역대 최대

프로그램 연중 운영, 1만8000명 292톤·판매액 17.3% 증가…택배 급증 전국 확대

광주시가 시민들이 손쉽게 김장을 준비하고, 기업·단체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빛고을 김장대전'이 매출 20억 8000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 참여형 김치 나눔·판매 행사인 '2025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에 기관·단체·시민 등 1만 8000여 명이 참여해 총 292.6t, 20억 8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운영한 '연중 김치담그기 프로그램'에는 3400여 명이 참여해 24t, 2억 290만 원 상당의 김치를 판매했다.

또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한 '김치대전 전시행사'에는 1만 4000여 명이 참여해 총 268t, 18억 7000여만 원 상당의 김치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첫 개최 이래 최고 실적이며, 지난해 판매액 17억 7000만 원(275t)보다 17.3% 증가한 수치다.

이번 성과는 참여 인원과 매출액이 모두 늘며 김장대전의 성장세를 입증한 것으로, 광주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동시에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택배 주문 금액이 전년 대비 47.1% 늘어 광주김치에 대한 전국 수요

확대와 함께 김치 소비문화 변화를 확인했다.

또 광주지방국세청 등 53개 기관·단체가 김치 30.9t을 촉탁제제에 기부해 단순히 김치 판매만이 아닌 나눔으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김장대전에 사용된 배추·소금·고춧가루·멸치액젓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구매해 활용했다. 시는 연중 김치담그기 프로그램과 본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운영 전략이 광주김치 충성 고객 확보와 시민 만족도 제고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손권일 기자

장수 2025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수검 당부

연말까지 일반건강검진·국가암검진 가능, 신분증 지참

장수군은 2025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올해가 가기 전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더라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연말 이전 수검은 필수임을 강조했다. 일반건강검진은 신체계측,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활영 등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B형간염, 끌다공증, 이상지질혈증 검사 등이 포함된다.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 대사질환의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신장 기능 이상이나 빈혈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수 있다. 검진을 위해서는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해야 한다.

국가암검진은 △위암 40세 이상 남녀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폐암

54~74세 고위험군이 대상이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

다. 현재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는 위암

과 유방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2025

년 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흄수년

도 출생자로 별도 예약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의료원 별관 2층 건강검진

실을 방문하면 된다.

노승무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건강

검진은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 받을수

록 의미가 크다"며 "연말이 되면 검진 수요가 물릴 수 있는 만큼 미수검자께서는 서둘러 검진을 받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반건강검진 문의는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 국가암검진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보이는 ARS로 하면 된다.

한편, 장수군은 2026년 농업기술 시범사업 대상자를 오는 다음달 7일까지 신청·접수한다.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총 15억 원이 투입되며 총 207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사업 △중고랭기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 시범 △친환경 쌈채류 고설재배 기술지원 사업 등이다.

김서주 기자



군산시는 2024년 1월 인구대응담당관 내 외국인 정책 전담 조직 신설 이후 추진해 온 외국인 정책이 2025년 들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강화하며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군산시 외국인 주민 수는 역대 최고치인 1만 4,257명으로, 전체 인구(26만 5,473명)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3.0%에서 9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외국인의 '유입·정착·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책 체계를 구축해 왔다.

분야별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이 참여하는 '군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보육·교육·고용지원·정주지원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정착 지원을 받고 있다.

신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술인력(E-7~4) 전환자에게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비



터에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소해 한국어 교육, 생활 상담, 노무·법률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11월 말 기준 총 534 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기초 한국어 배우과 TOPIK 대비반에는 44명이 참여했다.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K-소통 한마당'과 바리스타 교육 과정도 운영해 직업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 참여를 확대했으며, 바리스타 교육 과정에서는 외국인 주민 6명이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울리 군산시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3년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97명이 참여해 제류자격 취득과 기초 조정 준비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받고 있다.

신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술인력(E-7~4) 전환자에게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비

자 설명회 등을 운영한 결과 숙련기능 인력은 2023년 말 100명에서 2025년 9월 239명으로 증가했으며, 가족 동반 정착 사례도 늘어 동반가족(F-3-74)은 0명에서 91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군산시는 자아동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외국국적동포 지원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챗봇 상담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비대면 정착 서비스와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와 협력해 외국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체육·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가 '작한가격업소' 7개 소(외식업 1, 이·미용업 6)를 신규 지정하고, 인증 표찰을 수여했다.

시는 현지실사와 평가를 통해 올 하반기 7개 업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지정 1년 이상 업소 대상으로 재심사도 진행하여 36개소를 재지정하였다.

이로써 총 20개 업소가 올해 신규 지정됐으며, 지난해 42개소 대비 43% 증가한 총 6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작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수여 △상·하반기 연 2회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 칩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언론 홍보 등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영임 기자

보성군·여수공항, 지역과 공항이 함께 도약한다

보성군은 2025년 국가건강검진 미수

검자를 대상으로 올해가 가기 전 일반

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을 받을 것을 당

부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더라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연말 이전 수검은 필수임을 강조했다. 일반건강검진은 신체계측, 혈액검사, 흉부 방사선 활영 등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성별과 연령에 따라 B형간염, 끌다공증, 이상지질혈증 검사 등이 포함된다.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 대사질환의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신장 기능 이상이나 빈혈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수 있다. 검진을 위해서는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해야 한다.

국가암검진은 △위암 40세 이상 남녀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폐암

54~74세 고위험군이 대상이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

다. 현재 장수군보건의료원에서는 위암

과 유방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2025

년 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흄수년

도 출생자로 별도 예약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의료원 별관 2층 건강검진

실을 방문하면 된다.

노승무 장수군보건의료원장은 "건강

검진은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 받을수

록 의미가 크다"며 "연말이 되면 검진 수요가 물릴 수 있는 만큼 미수검자께서는 서둘러 검진을 받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반건강검진 문의는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 국가암검진 문의는 공단 고

객센터·보이는 ARS로 하면 된다.

한편, 장수군은 2026년 농업기술 시

범사업 대상자를 오는 다음달 7일까지

신청·접수한다.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총 15억 원이 투입되며 총 207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농

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사업 △중고랭

기 여름배추 재배사업 △중고랭기 여

름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 시범 △친

환경 쌈채류 고설재배 기술지원 사업

등이다.

우덕현 기자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도 편안하게

정읍시가 노후화된 시내버스를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로 대체 교체하며 대중 교통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읍시는 차령이 만료된 경유 버스 7대를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해, 총 10대의 친환경 버스가 시내를 누비게 됐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는 최대 11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며, 기한이 도래하면 신차로 대체차(차령을 교체)해야 한다. 정읍시는 이 시기에 맞춰 노후된 경유 버스를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없고 소음과 진동이 적은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자 했

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전기저상버스는 출입구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등 향암면역치료제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우덕현 기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 노후 버스 교체 시기에 맞춰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속도적으로 확대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태주단감'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센터는 제2청사에서 재배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태주단감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서재만 단감 현장교수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 태주단감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을 전수했다.

이영임 기자

노후 전주산단, 경쟁력 갖춘 미래산단으로!



노후화된 전주지역 산업단지가 짧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단으로 점차 탈바꿈되고 있다.

전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산업 생태계의 중심인 노후 산업단지를 다시 뛰도록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각종 산단 재생·고도화 정책이 다수의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로 이어지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지구 선정과 산단환경조성사업 등 주요 공모사업이 잇따라 채택되면서 전주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